

## 성장모멘텀을 갈망하는 세계경제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의 블랙홀이라 할 정도로 세계수요를 이끌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폭 확대 및 자원수출 신흥국경제의 부진심화 우려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연초부터 고조되고 있음

- 중국경제의 부진 지속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심화
  - 연초이후 브렌트유(-11.5%), 니켈(-2.8%), 구리(-2.7%) 등 원자재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베네수엘라, 나이지리아 등의 국제금융 신청 압박
  - IMF의 라가르드 총재(2016.2.4일, Financial Times)는 신흥국은 안전망(Safety Net)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지적

□ 이와 같은 불안심리로 인해 연초부터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주식시장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 및 환율급등으로 나타남

- 2001~2011년중 신흥국에 대한 국제자본 유입규모는 3조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년에는 신흥국에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이 유출되었으며 IMF는 2016년중 신흥국에서 4,480억달러 자본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브라질, 러시아 등 자원수출 신흥국의 환율은 금년 들어서만 각각 6.2%, 1.5% 상승<sup>\*</sup> 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강한 내성을 보이던 우리나라 원화환율도 금년에는 5% 상승하였음

\* 금년중 최대상승 : 러시아 13.7%(1.21일), 브라질 4.9%(1.21일)

□ 특히 국제원유가격의 급락은 비산유국의 소비여력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석유기업의 이익감소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인 조선업 및 조선 후방산업, 금융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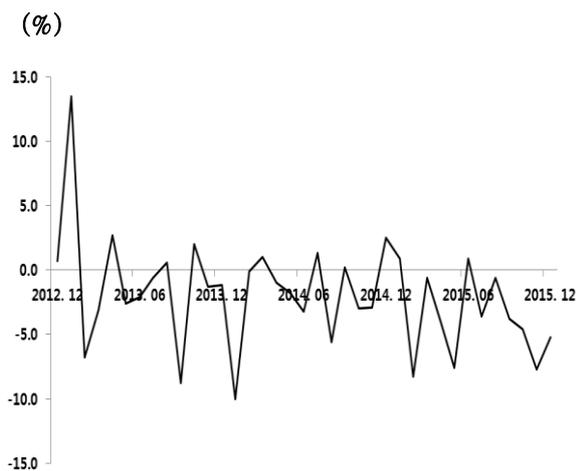
- Financial Times(2.22일)에 따르면 산유국을 중심으로 국부펀드(Sovereign Funds)가 자산운용사에서 인출한 자금규모는 2015년 중 465억달러에 달하며 Moody's는 2016년 중 동규모가 25% 증가할 것으로 예상(전세계 국부펀드의 운용규모는 7조달러로 추산)

□ 또한 중국 환율정책의 불투명성,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, 미국 연준의 불투명한 정책방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급속한 금융자산 포지션 조정이 진행된 것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

-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급속한 절하 예상이 팽배해 있는데 중국정부는 지난 1월 7일 위안화 환율은 미달러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국 통화 가치도 함께 감안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환율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
- 일본 엔화가 금년들어 강세를 보이자 일본은행이 엔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였으나 엔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은행주를 중심으로 일본 주가도 급락
-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자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10일 의회증언에서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언급하여 금리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

- 국내경제는 1월 수출실적이 전년동월대비 18.7% 감소하는 등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. 동남권지역의 산업생산도 지난 2년반 동안 거의 매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 
주력산업인 조선, 기계, 철강의 경우 과거 최고 생산량과 비교하면 현재의 생산량이 60~85%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
- 최근 국내정책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·석유화학은 2017년 업황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며 조선업은 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 제조업의 어려움은 적어도 2~3년 정도 지속될 수 있음

동남권 산업생산 증가율



주 :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
자료 : 통계청

동남권 주력제조업 최대치 대비 생산수준

| 구분             | 조선                 | 기계                 | 철강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생산지수<br>최고치(A) | 125.7<br>(2013.1월) | 130.0<br>(2011.6월) | 114.4<br>(2008.3월) |
| 생산지수<br>현재치(B) | 75.7               | 101.6              | 97.5               |
| B / A          | 60.2               | 78.2               | 85.2               |

주 : 생산지수 현재치는 2015.12월  
자료 : 통계청

- 세계 3대 경제권역중 미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으나 유로지역의 수요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 GDP증가분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음
  -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3.6%에서 3.4%로 하향 조정하였음. 그리고 중국의 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1.2% 감소하고 수입도 18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 
- 따라서 세계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·아일랜드 등에서 강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유로지역의 소비활동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가 높음
  - 특히 중국 수출부진의 상당부분이 유로경제 위축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대를 가질만한 뉴스로 판단됨
    - \* 중국의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은 2011년 2,558억달러에서 2015년 2,466억달러로 축소
  
- 이와함께 사우디,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과잉공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산량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것도 기대를 갖게 하며 금년말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

담당: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 
 김민준 책임연구위원  
 Tel. 051) 620-3186